

http://dx.doi.org/10.17703/JCCT.2018.4.1.275

JCCT 2018-2-33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에 나타나는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의 치유의 구조

The Structure of Healing in the Functor and Semantic Arguments Appearing in the Poem "Bellflower Flower" by Cho Ji-Hoon

박인과*

Park In-kwa*

요약 이 연구는 조지훈의 시와 시적 자아가 어떻게 시냅스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문학적 기체와 자아의 기체가 만나는 점점인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조를 문학치료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적극적인 치료의 부호화를 피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은 시의 그물망으로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을 함수자인 '도라지꽃'을 향하여 설치한 것이다. 이때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에 우울을 끌고 오는 그리움이 걸려드는 것이다. 이것이 치유의 기능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면 이전보다 향상된 문학치료의 기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조지훈, 문학치료,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 치유의 시냅스 구조, 부호화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poem and poetic ego of Cho Ji-Hoon form synapses. It is to clarify the synaptic structure of the healing,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literary mechanism and the mechanism of the ego. Therefore, it aims to encode the active therapy by substituting the structure into the literary therapy program. Cho Ji-Hoon's poem "Bellflower Flower" is a mesh of poem, and a mesh of semantic arguments is set up for the 'Bellflower Flower' of functor. At this time, the longing that attracts depression to the net of the semantic argument is caught. This exists as a function of healing. If we embody a literary therapy program that utilizes the synaptic structure of this healing, it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function of literary therapy improved than before.

Key words : Cho Ji-Hoon, Literary Therapy, Network of Semantic Argument, Synaptic Structure of Healing, Encoding

1. 서론

인간이 문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 행위는 그 트라우마의 흔적 지우기인 것이다. 문학이 치유의 효과를 지니는 것

은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트라우마의 “부호화”[1,2,3,5]를 다른 곳으로 부호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조지훈의 시와 자아가 어떻게 시냅스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문학적 기체와 자아의 기체가 만나는 점점인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정회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접수일: 2017년 12월 27일, 수정완료일: 2018년 1월 12일

게재확정일: 2018년 1월 27일

Received: December 27, 2017 / Revised: January 12, 2018

Accepted: January 27, 2018

*Corresponding Author: born59@hanmail.ne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Korea

문학치료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적극적인 치료의 부호화를 피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트라우마의 부호화는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 트라우마의 부호화가 치유의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문학치료의 진행선상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이 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인 문학치료학적인 부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경생리학을 다루는 참고문헌들을 탐색하며 본 연구자의 “논문들”[6-25]의 연장선상에 있다.

연구 방법은 이 시의 4연을 각각 1연씩 분석하여 시적 자아의 우울이 나타나는 현상을 추적한다. 그리고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을 이용하여 우울이 어떻게 시의 치유의 기능을 조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여 시적 자아가 어떤 방법으로 트라우마를 타자화 시키는지 알아내는 것은 향후 문학과 치료의 점점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II.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의 시넵스

조지훈은 작품을 통해 트라우마를 인체에서 끌어내어 자연의 사물에 부호화시킨다. 그렇게 치유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趙芝薰 전집 1 詩』의 64쪽에 게재된 「도라지꽃」이다. 각 연은 마지막 연에 나타나는 ‘도라지꽃’을 묘사하는 의미론적 논항이 된다. 그래서 1~3연은 4연에 대한 의미론적 논항으로써 4연에 시넵스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4연이 이 시의 전체적인 함수자가 되며 4연의 ‘도라지꽃’이 함수자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적인 핵심어로 분석해 본다면 시 전체에 흐르는 ‘우울’이 의미론적 논항이며, 마지막 행의 ‘도라지꽃’이 함수자이다. 이 시는 마지막 행에 나타나는 함수자 ‘도라지꽃’에 모든 의미와 정서가 집중되고 있는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의 시넵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관계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다림에 야윈 얼굴
물 위에 비초이며

가녀린 매무새
홀로 돌아왔다.

못견디게 향기로운
바람결에도

입 다물고 웃지 않는
도라지꽃아.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 전문

1. 트라우마의 얼굴

이 작품에서 보면 인간의 트라우마는 ‘기다림에 야윈 얼굴’이다. 어떠한 기다림이든지 인간은 기다리다가 종말을 고한다. 그리고 보면 기다림이란 트라우마의 근원이다. 1연에서 조지훈은 트라우마의 얼굴을 물 위에 비치게 한다. 즉 물 위로 투사하여 희석시키는 것이다. 물은 모든 것을 녹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트라우마도 물 위에 띄워 시적 화자는 문학치유의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2. 분리의 부호화

2연에서는 ‘가녀린 매무새’가 나온다. 이 역시 트라우마의 모습이다. ‘가녀린 매무새’가 홀로 돌아왔다고 하며 트라우마와의 거리를 재고 있다. 이로써 시적 화자와 트라우마는 분리되어 존재하기 시작한다.

3. 향기로운 그리움

3연에서는 ‘못견디게 향기로운’ 그리움을 부호화한다. 이것은 다음 연에서 ‘도라지꽃’을 불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음 연에 ‘도라지꽃’이 나오으로써 시적 자아가 트라우마를 전송하는 대상은 향기로운 그리움을 간직한 도라지꽃임을 알 수 있다.

4. 도라지꽃을 타자화 하는 우울

4연에서는 도라지꽃이 사실은 시적 자아의 얼굴이지만 “입 다물고 웃지 않는 / 도라지꽃아.”라며 도라지꽃을 타자화시키고 있다. 이는 문학치료의 테크닉으로써 우울의 정서를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도라지꽃으로 설정하고 “가녀린 매무새 / 홀로 돌아왔다.”에 이어 “입 다물고 웃지 않는 / 도라지꽃아.”라며 도라지꽃을 타자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5.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

이 시에서는 우울의 정서들이 의미론적 논항이 되고 도라지꽃이 함수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적 자아의 우울은 도라지꽃에 첨부되어 인체와 분리되어 나타난다. 의미론적 논항인 우울은 시어의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도라지꽃의 묘사에서 어렴풋이 비치고 있다. 왜냐하면 시적 자아가 도라지꽃에 우울의 정서를 ‘붙여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붙여쓰기’가 부호화이다. 그러면 시 이 ‘붙여쓰기’는 치유의 시냅스 구조로써 존재한다.

III. 논의 및 제안

이 시에서 나타나는 함수자는 도라지꽃이다. 그리고 의미론적 논항은 우울이며, 이 주체는 시적 자아의 정서 상태이다. 조지훈은 우울의 정서를 도라지꽃에 시냅스 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지훈 자체가 우울의 의미론적 논항이 된다.

조지훈의 시에서 의미론적 논항은 시의 언어로 나타나며, 함수자는 시적 화자의 그리움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함수자의 표상은 “입 다물고 웃지 않는 / 도라지꽃”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도라지꽃은 시적 화자의 그리움을 논항으로 삼는 함수자이기도 하다.

조지훈의 의미론적 논항은 우울을 시적 자아로부터 베껴내어 물 위에 얹어놓고 우울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수자는 이 그리움 혹은 기다림이라는 의미론적 논항들을 시어로 풀어놓는 주체이다. 그리고 시의 그물망으로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을 마지막 연의 함수자인 ‘도라지꽃’을 향하여 설치한다. 이때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에 우울을 끌고 오는 그리움이 걸려드는 것이다. 독자의 그리움들도 인체의 신경망을 통해 시적 그물망으로 걸려든다. 그래서 독자의 우울의 트라우마는 시의 그물망에 걸려들기 때문에 인체에서 뽑혀 나와 그 그물망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로 독자의 트라우마도 독자 자신에게서 삭제되는 치료의 과정이 수행된다.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은 이렇게 치유의 시냅스 구조로 이루어진 시적 화자의 우울의 함수자이다. 그래서 「도라지꽃」은 시적 화자의 우울의 논항들을 끌어당긴다. 그 결과 시 「도라지꽃」은 우울로 존재한다. 창작자는 인체적 우울이 시적 우울로써 존재하도록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의 배치를 통해 치유의 테크닉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가동시키기 위한 창작의 목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써 그 우울을 시적 함수자로 전가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울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시의 치유의 기능이 여기에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구체화된 문학적 진술로써 인류의 우울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써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처럼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IV. 결론

조지훈의 우울은 그의 창작 속에서 시적 에너지로 승화되는 도라지꽃을 등장시키며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형성한다.

조지훈의 의미론적 논항은 우울을 시적 자아로부터 베껴내어 물 위에 얹어놓고 우울을 떼어내는 작업을 한다. 조지훈의 함수자는 이 그리움 혹은 기다림이라는 의미론적 논항들을 시어로 풀어놓는 주체이다. 그리고 시의 그물망으로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을 마지막 연의 함수자인 ‘도라지꽃’을 향하여 설치한다. 이때 의미론적 논항의 그물망에 우울을 끌고 오는 그리움이 걸려드는 것이다. 독자의 그리움들도 인체의 신경망을 통해 시적 그물망으로 걸려든다. 그래서 독자의 우울의 트라우마가 시의 그물망으로 걸려드는 경로로 독자의 트라우마도 독자 자신에게서 삭제되는 치료의 과정이 수행된다.

조지훈의 시 「도라지꽃」은 이렇게 치유의 시냅스 구조로 이루어진 시적 화자의 우울의 함수자이다. 조지훈의 창작 행위는 인체적 우울이 시적 우울로써 존재하도록 함수자와 의미론적 논항의 배치를 통해 치유의 테크닉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치유의 시냅스 구조를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면 이전보다 향상된 문학치료의 기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Baars Bernard J and Gage Nicole M,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1E, B. G. Kang trans, Kyobo Books, pp. 183-185, 2010.
- [2] Bryan Kolb, Whishaw Q Ian(2012),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H. T. Kim, M. S. Kim, J. J. Kim co-trans, Sigma Press, pp. 151-153, pp. 309-312, 2012.
- [3] Cooper Geoffrey M and Hausman Robert E,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J. S. Jeon et al, trans, World Science, pp. 436-437, pp. 544-548, 2011.
- [4] Cho Ji-Hoon(1996), *Cho Ji-Hoon Jeonjib 1 Poetry*, Paju: Nanam.
- [5] H. S. Min, K. J. Chang, O. R. Kwon, S. Y. Lee, H. M. Lee, H. A. Kim(2011), *Human physiology*, Yangseowon, p. 59, p. 146, 2011.
- [6] Park In-Kwa(2015),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1, 37-64.
- [7] Park In-Kwa(2015), "A study on Transfer-Litero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Literotherapy*, Vol. 5, No. 1, 85-106.
- [8] Park In-Kwa(2015), "Structuration of literotherapy transi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2, 21-36.
- [9] Park In-Kwa(2016), "A Study on the Right Writings for Sijo -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2, No. 1, 13-33.
- [10] Park In-Kwa(2016),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eutic Use of Sij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11] Park In-Kwa(2016), "A Study of Literary Therapy on the Rated Sijo as a Conductor that Works the Motherboard of Min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2, No. 4, 31-40.
- [12] Park In-Kwa(2016), "Literary Therapeutic Mechanism Analysis in which the Rated Sijo is Encoded as a Battery of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4, No. 4, 45-50.
- [13] Park In-Kwa(2017), "Sijo Literature Therapeutic Research on Structuring of Emotion-D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1, 26-31.
- [14] Park In-Kwa(2017), "A Study on Sijo Literature Therapy structuralized in the Rated Cod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2, 9-18.
- [15] Park In-Kwa(2017), "A Study on the Structure of Rated Sijo which is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3, No. 3, 7-19.
- [16] Park In-Kwa(2017), "A Study on the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s of Ancient Sijo that Ends without a Predicat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8, 225-230.
- [17] Park In-Kwa(2017), "A Study of the Sijo's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 concentrating on the Twelfth Sound Step",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8, No. 4, 403-428.
- [18] Park In-Kwa(2017), "Therapeutic Functor that calls semantic Argument -Focusing on the compound nouns in Sijo",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3, 35-39.
- [19] Park In-Kwa(2017), "A Study on Literary Therapeutic Codes of Sijo Fused by Transfer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10, 167-172.
- [20] Park In-Kwa(2017), "A Study on Literature Therapy Codes Encoded by Auditory Stimuli Transferred from Cho Ji-Hoon's Poem If I Blow a Flut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8, No. 5, 467-482.
- [21] Park In-Kwa(2017), "The Semantic Structure of Synaptic Activation, Likened to Cho Ji-Hoon's Poem 'Lin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3, No. 4, 21-26.
- [22] Park In-Kwa(2017), "A Study on the Encoding of Literature Therapy in the Third Line of the Poem 'Morning' Written by Cho Ji-Ho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3, No. 4, 123-129.
- [23] Park In-Kwa(2017), "The Layer of Emotion that Makes up the Poem "Falling Flowers(落花)" by Cho Ji-Ho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4, 1-9.
- [24] Park In-Kwa(2017), "Encoding of sentences appearing in Cho Ji-Hoon's poem "White nigh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4, 31-37.
- [25] Park In-Kwa(2017), "A Study on Literature Therapy Structures Encoded to Genetic Cipher Location: Focusing on the Sadness Motif that are Carved on the Cho Ji-Hoon's Poem "Short Melodies of Grass Leaf"",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8, No. 6, 1269-1284.